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2000.6.7 총여학생회실)

수신: 연성뿌연 사람들

발신: 쪽지

보고안건

1. 학생이 중심되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연세인 공청회
2. 김중운 사건
3. 김성희 사건
4. 철학과 대학원 스토킹 사건

논의안건

1. 학칙 2차 수정안 작성

성폭력 개념 정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 강조 - 서울대 학칙

학칙 제정 이전의 사건을 학칙으로 소급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

-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 피해자의 사건 처리 이후의 보호조치
-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성폭력 대책위 위원직 박탈
- 대책위의 자체 처벌과 징계 요구 혹은 발의의 기준
-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공동체 내의 성문화 바꿀 수 있는 대책 필요

2. 철학과 대학원 스토킹 사건에 대한 지지자보

3. 행정학동 내각

[행정학동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위원회 연대]

- 사례수집
- 심리상담 전문 만들기
- ~~아동 상담~~ → ~~해결~~ 과정

내각가안.

언어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12대 총여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사건처리과정

며칠 전 나우누리 총여학생회 ID로 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그 메일을 보낸 분은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으며 메일의 내용은 같이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우리 학교 남학생에게 지난 학기부터 몇 차례에 걸쳐 언어적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메일의 내용으로 보아 신고인이 경험했던 사건들은 충분히 성폭력이라고 판단된다고 생각해서 신고인과 몇 차례 면담을 거치면서 자세한 진술서를 받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속해있는 각각의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신고인과 함께 피신고인에 대한 4가지 요구안을 작성하였고 피신고인과 3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피신고인과의 면담을 거치면서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진술한 사건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소속 단대와 실명을 명시한 공개사과대자보를 작성해 부착하는 것과 더불어 비상대책위의 4가지 요구안을 받아들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이 사건을 분명히 언어적 형태의 성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농담과 언설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했던 성적 농담과 언설들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남성의 성욕 충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있는 사과로 자신의 실명을 명시한 공개사과를 피해자와 함께 요구했고, 이것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 만연한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연세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연세인들이 이 사건을 피해자, 가해자 개개인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피해자, 가해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폭력이 그렇듯 이번 성폭력 사건도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체현한 개인에 의해 가해진 폭력이라고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소속 단대와 실명을 밝히고 공개사과를 하는 만큼 가해자의 비도덕성이 운운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유형·무형의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2000년 5월 청송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밥을 먹는 도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위해 사탕을 이리저리 돌려 빼는 연습을 해두라고 했다. 민망하기도 하고 역겹기도 했던 피해자가 화제를 돌리기 위해 “여기 까지,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요.” 라고 분명히 듣기 싫은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잘 들어두라” 라고 했다.

2. 1999년 2학기 상대 본관에서 청경관으로 가는 길에서 친구들 앞에서 피해자의 목에 난 뽀루지를 보며 뽀뽀는 입에다 해야지 왜 목에다 하느냐는 말을 함으로써 다른 친구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도록 했다.

3.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네가 가슴확대 수술을 하면 네 남자친구가 은근히 좋아할거다” 라는 말을 했다.

4. 1999년 2학기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다른 98학번 친구와 99학번 친구가 고를샘에서 밥을 먹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그 자리에 없었던 같은 과의 여학생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쌍년, ** 같았으면 존나 술먹여서 먹어버리고도 남았다.”

그 여학생이 누군가에 상관없이 같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인상이 찡그려지는 발언이었으며 그때 보다 못한 99학번 남학생이 제발 그만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식의 상스러운 발언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했던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원하면 상대 자치실에 대자보를 써서 사과할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는 말과는 상충되게 만약 자신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떤 다른 행위를 하게되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했다. 또한 가해자는 그렇게 까지 기분이 나쁠 줄은 몰랐다는 말과 함께 그런 건 진작 말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를 친구로 정말 좋아해서 그랬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사건 처리가 너무 확대될 경우 “나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물리적인 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해의 위협을 느끼게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안

1. 가해자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들이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실명을 명시한 공개사과대자보를 중앙도서관 앞, 상대에 게시해야 한다. 공개사과문은 6월 12일까지 비대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개사과문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자신의 발언이 성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신고인 뿐만이 아니라 연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과의 내용
 - 신고자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다른사람 같으면 너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협박을 했던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내용
 - 앞으로 신고자에게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시는 이러한 성폭력을 누구에게도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
2. 앞으로 절대 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3. 앞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언어적 성폭력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폭력을 가하지 않겠다.
4.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신고인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복도 가하지 않는다.

2000. 6. 12 김중윤

언어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12대 총여학생회 · 비상대책위원회

나는 감동으로 이 사진에 대해 오도하여 얘기하거나
나에 대해 관계없는 비난을 하지 않음한
공개 사과 이후, 이 사진에 대해 비대위명으로
나가는 사진경의서 이외의 내용을 알하지
않을것을 약속한다.

